

**질문:** 누가 하나님을 창조했습니까?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오셨을까요?

무신론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그의 책,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에서 말합니다. 만물이 어떤 것으로부터 기인했다면, 신도 기인한 출처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신은 신이 아니다 (또한, 신이 신이 아니라면 당연히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의 질문은 사실 “하나님을 누가 만들었는가?” 라는 아 이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현학적으로 한 것입니다. 아이들조차도 무에서 어떤 것이 생 성될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면, 하나 님을 생성시킨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입 니다.

이 질문은 궤변적입니다. 왜냐하면 신도 어디로부터인가 기인했을 텐데 그것은 무엇 인가라는 그릇된 가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 자체가 이해하기 어렵습

니다. 마치 “파란색은 어떤 냄새가 날까?” 라고 묻는 것과 같습니다. 파란색은 냄새를 가진 범주에 속하지 않기에, 질문자체가 오류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피조물이나 존재하 게 된 것이나 또 발생하게 된 것의 범주에 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창조된 것이 아니고, 그는 그저 존재하십니다.

이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는 무에서는 무 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 이후로 아무것도 존재하는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존재하는 것이 있습 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없을 때부터 무엇 인가가 항상 존재할 수 밖에 없다는 것입 니다. 그 항상 존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분입니다.

From gotquestions.org

## 2010 새생명 전도 축제

주제: 한 가정이 한사람 씩, 잃어버린 영혼 찾기  
 일시: 2010년 11월 28일 주일 1,2부 예배  
 장소: 갈보리교회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 11월 예배담당 안내


	1부기도	2부기도	수요기도	1부예배 안내	새신자 안내	주차안내	주방봉사
7일	이광희	야외예배	신경화	이경자/김순자	이수원/한상순	김광영/양봉옥	이기중/오지연/김제연
14일	최재학	정성호	신미숙	이경자/김순자	이수원/한상순	김광영/양봉옥	이기중/오지연/김제연
21일	현석호	박영태	신현연	이경자/김순자	이수원/한상순	김광영/양봉옥	이기중/오지연/김제연
28일	박일영	정희자	안재현	이경자/김순자	이수원/한상순	김광영/양봉옥	이기중/오지연/김제연

### 갈보리 금주 기도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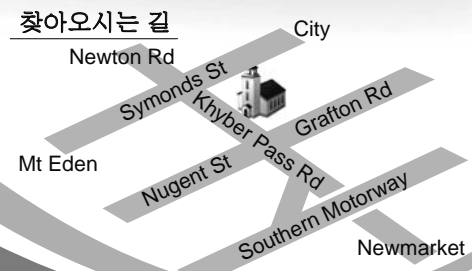
- 영육으로 고통중에서 주의 뜻을 구하는 성도들에게 영육의 회복과 성숙함이 있도록
- 경색된 남북 관계로 더욱 고통 속에 있는 북한인 성도들이 믿음을 굳게지키도록
- 인과 국가를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앞에 무릎을 꿇고 떠나가도록
- 기도로 세워지고 말씀으로 성숙하는 갈보리교회가 되도록

### 갈보리 교회를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 이태한
부목사	: 김중환, 심창진
교육전도사	: 진혜령
시무장로	: 김영길, 이광희 정관영, 최재학 현석호
은퇴장로	: 김교섭, 박일영 정덕수
협동장로	: 유승재
지휘	: 신경화
반주	: 박양규, 유지선



2010 교회표어: (사도행전 4:11-12)  
**“오직 예수, 오직 구원”**



찾아오시는 길  
 Newton Rd, City, Mt Eden, Newmarket

## 갈보리교회

CALVARY PRESBYTERIAN CHURCH

**2010년 11월 21일**

주보 12권 47호

[www.calvary.org.nz](http://www.calvary.org.nz)

**예배시간안내**

주일1부예배 주일 PM1:00 본당 유아부 주일 PM1:00 유아실

주일2부예배 주일 PM3:00 본당 아동부 주일 PM1:00 Chapel

수요일예배 수요일 PM7:30 본당 중고등부 주일 PM1:00 별관

새벽기도 금요일 AM5:50 Chapel

*St David's Presbyterian Church. 68 Khyber Pass Rd. Grafton Ph: 09 - 369-5077*

## 주일1부예배

오후 1시	인도:이태한목사	
전주	반주자	
예배의 부름	시편 145:1-3	인도자
개회송	찬양대	
참회의 기도	다함께	
*찬송	34장	다함께
*성서교독	49	다함께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함께
찬송	456장	다함께
대표기도	현석호장로	
성경봉독	마가복음 5:1-17	인도자
찬양대찬양	나무십자가 찬양대	
설교	거라사인의 현대인	이태한목사
찬송	253장	다함께
헌금기도	인도자	
교회소식	인도자	
응답송	주만 바라 볼지라	다함께
축도	이태한목사	

\*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순서안내 | 다음주 기도: 박 일영 장로 12월 5일: 정 관영 장로

## 주일2부예배

오후3시		
찬양	심창진목사	
기도	박영태집사	
성경봉독	마가복음 5:1-17	인도자
설교	거라사인의 현대인	이태한목사
찬송	253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축도	이태한목사	

다음주 기도: 정희자권사

## 수요일예배

오후7시30분		
찬양	수요찬양대	다함께
기도	신현연집사	
성경봉독	계시록 17:1-6	인도자
특송	2구역	
설교	음녀에서 떠나라	이태한목사
찬송	344장	다함께
광고	인도자	
주기도	다함께	

수요일예배 기도: 정덕수장로  
다음 수요일기도: 신현연집사

## 설교핵심 요약

### 마가복음 5장

7. 큰 소리로 부르짖어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컨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게 마옵소서 하니

8. 이는 예수께서 이미 저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였음이라

## 갈보리 소식

※ 처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에 새 가족실에서 담임 목사를 만나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2010 교회표어: 오직 예수 오직 구원 (행4:11-12)

① **새생명 전도 축제:** 제 2차 새 생명 전도 축제가 다음 주일 1,2부 예배시에 있습니다. (등록카드 제출바랍니다.)

② **이삭줍기주일:** 다음 주일은 이삭줍기 주일입니다.

③ **연합예배:** 오늘은 St David's 교회와 연합으로 오전 10시에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렸습니다

④ **연합 전시회:** 오늘 오전 11시-오후 3시 장소: 중, 고등부 예배실.

⑤ **기도회:** 매주화요일 오후7:30분, 장소: Duke Institute

⑥ **성경 완독자:** 김경수 집사, 김교섭 장로, 고대아 권사, 노은숙 권사, 방명아 집사, 박하림 집사, 윤경례 집사, 임병숙 권사, 정혜숙 집사, 정희자 권사, 조안나 성도, 신경화 집사, 황경임 집사 (혹 누락 되신 분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⑦ **교육:** 세레(유아세레) 반기를 원하시는 성도는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성경공부 A,B반을 수료하신분은 교육면제 입니다)

**교육:** 11월 21, 28일, 12월 5, 12일 (4주간, 유아세레는 부모 교육 1주), **문답:** 12월 17일, **세례일:** 12월 24일 저녁

⑧ **코스타:** 복음, 민족, 땅끝이라는 주제로 청년 코스타 2010.11.23(화)-26(금) Waikato University, Hamilton 에서 코스타 열립니다.

⑨ **청소년 코스타:** 2010.12.14(화)-17(금) Chiritian Youth Camps, Ngaruawahia 에서 가집니다.

## 갈보리교회 선교지

### 해외 선교지

- ▷루마니아: 김유정선교사 (집시사역)
- ▷중국: 김강한목사 (탈북자사역)

### 국내 선교지

- ▷결식자 봉사
- ▷밀알장애우 봉사



## 11월 교회일지

### 야외예배 및 운동회:

11월 7일(주일)

### 추수감사주일:

11월 14일(주일)

### 연합예배:

11월 21일(주일)

### 새생명전도축제:

11월 28일(주일)

### 이삭줍기주일:

11월 28일(주일)

죽음이 나를 부를때  
나는 뛰어가 맞이 하렵니다.

세상사람들의 죽음과  
나의 죽음은 반드시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를 부를때  
나는 미련을 두지 않고 맞이하렵니다.

이 세상의 화려함과 쾌락보다는  
내분향이 더욱좋고 행복한 곳이기애...

죽음이 나를 부를때  
나는 아니요가 아니라 조금만 더가 아니라  
"예"하고 달려가렵니다.

나의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으니 이제 후로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리라는 고백을 한 바울처럼

나 또한 내 생애의 주님으로  
내 달려갈 길을 다 갔기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 하지 않으리  
나는 죽음을 부인하지 않으리

내 육체의 죽음은 곧  
다시 올 영원한 영광의 날이  
나를 기다리기에...

죽음은 징계가 아니라  
생애 완성이라.

요즈음 난 나의 마지막 때는 어떠한가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마지막 때엔 과연 날 위해 울어줄 형제가  
몇이나 될까를 생각하니..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시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부를 때는 나는 예라고  
달려갈 것입니다.

-죽음이 나를 부를 때-